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에게 생명과 사랑을...



생명사랑 뉴스레터

제145호
2015.6.15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85번길 34-12

■ 홈페이지 : <http://www.pssoaam.or.kr>
■ Tel. 051)231-3004~5 Fax. 051)231-3006

진료기록의 치유의 힘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김 성 수 교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난달 뉴욕타임지의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많이 알수록 질병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관한 보도였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인 조건에서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우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온라인 오픈 노트(진료기록공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온라인 오픈 노트' 운동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처방전과 검사결과, 의사의 경과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무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진료기록공개'의 결과에 고쳐되어 2014년 12월까지 미국에서 약 5백만 명의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에서는 전국 규모로 '온라인 진료기록공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스웨덴, 영국에서도 '온라인 진료기록공개'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의사들 입장에서의 '온라인 진료기록공개'에 대한 우려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진료기록작성을 하고 공개된 진료기록에 대하여 쏟아지는 환자들의 질문에 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 된 사례 중에서 진료기록공개가 의사들의 우려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다면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진료기록공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사이트에서 자신의 검사결과와 영수증을 찾아보는 등의 제한적인 진료기록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하다. 그러나 미국의 예처럼 온라인으로 환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진료기록을 완전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진료기록 요구 권한과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제공 의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매번 환자가 의료분쟁이나 보험관련 문제가 부재하는 상황에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구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다.

미국의 '온라인 진료기록공개'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진료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를 환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 후 의사의 설명과 지시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질병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 환자의 평균적 의료정보 이해능력 중학교 2학년 정도라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진료기록의 치유의 힘"을 경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진료 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정리 메모하고 진료 중에도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진료기록공개'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아는 만큼 '건강' 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진료기록공개'가 가져다주는 환자-의사 관계의 투명성 확립과 신뢰형성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식이 우리 의료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사랑 후원가족

후원금 접수기간 2015년 5월 16일~2015년 6월 15일

후원자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은행, 208-01-000379-5

3,000원 강민정 강성원 김기호 김덕수 김혜진 문영신 박문희 이경근 이명희 이문기 조영희

5,000원 강보성 강인윤 강현성 고지순 공성훈 공용배 공원우 광도현 구진환 김 진 김 혁 김경옥 김군도 김금송 김동권 김명후
김미경 김미은 김민수 김병국 김병석 김병수 김선에 김수연 김순영 김승희 김영덕 김영옥 김영희 김정옥 김정훈 김조룡
김종민 김종수 김주영 김주혜 김창근 김태욱 김현주 김형배 김형수 김화숙 남순옥 노선규 문해두 박경하 박기룡 박기석
박병률 박보근 박상근 박옥자 박종수 박종식 박찬영 박찬우 박필용 방솔민 방예지 배돌연 백대진 빈영자 서병배 서영수
서옥자 선현석 손경희 손원환 손종연 손창선 손형선 송상호 송오선 신 혁 신동덕 신현근 신혜경 심영조 심재동 심천성
안경철 안광환 안기주 안옥경 양지현 염정아 오남환 오영옥 오현주 우대명 윤영근 윤원호 윤은경 이강호 이경택 이규희
이다빈 이동훈 이상목 이상민 이수진 이숙희 이양목 이외순 이윤희 이은정 이재봉 이정기 이정영 이정원 이정훈 이정희
이창성 이판희 이필수 이호율 임영한 장기현 장동호 전현호 정만채 정성욱 정애경 정연보 정재훈 정지혜 정진국 정한수
조수현 조영완 조재순 지세윤 차경임 최교창 최상일 최영수 최용현 최찬수 추정미 추종구 표정숙 하태호 하혜정 한경화
한수미 한지우 한창민 홍승표 황남용 황영운 황진만 **9,589** 황지옥

10,000원 강기호 강민채 강상희 강수태 강신웅 강은화 강정숙 강태동 강현주 경홍태 고정우 고창미 광미숙 구형모 권태곤 권태상
권태현 권혁태 김경남 김경동 김경렬 김경미 김귀옥 김기종 김기환 김대일 김도호 김동겸 김동현 김말백 김맹순 김명선
김명숙 김명훈 김문자 김미경 김미나 김미진 김미향 김미혜 김민형 김민혜 김병호 김성민 김성은 김성희 김세빈 김승민
김아현 김영애 김영우 김영자 김영환 김영희 김예정 김옥빈 김용성 김용숙 김윤기 김윤미 김윤정 김은숙 김은정 김응태
김재연 김재희 김정건 김정길 김정식 김정애 김정옥 김정화 김종형 김준언 김창수 김철모 김철범 김태경 김태균 김태현
김향옥 김현구 김혜진 김홍지 김희경 꼬뜨레 나우식 남보라 남상원 도현정 류종욱 문경미 문덕술 문병생 민병기 민상희
박기홍 박돈수 박동욱 박문포 박미경 박병희 박상운 박상태 박성현 박세정 박소연 박신혜 박양식 박영제 박영춘 박용원
박우석 박은희 박인기 박정영 박준영 박지원 박찬송 박철규 박철성 박태영 박현옥 박형필 배경숙 배복자 배영미 배의윤
배창기 변윤열 변현영 서옥성 선미리 선수진 설대원 성강현 성수빈 손대호 손봉균 손승용 송정희 신동학 신시훈 신안철
신여순 신원기 신은아 신정철 신호정 심시보 안재현 양명옥 양소영 양점미 어은아 여승익 여지현 염두균 오도연 오바다
오상민 오현주 오혜령 우정애 유지민 유행숙 유현주 윤모세 윤승우 윤신우 윤신현 윤영산 윤우원 윤재도 윤지영 윤태경
윤혜경 이각중 이경숙 이경혜 이광식 이귀미 이규호 이기영 이기태 이기현 이도진 이동렬 이동훈 이두호 이명규 이미정
이미화 이민호 이봉룡 이봉순 이상민 이상혁 이성대 이성익 이성자 이수찬 이순남 이순이 이시양 이시혁 이연담 이연재
이영규 이영림 이영애 이윤희 이우재 이우환 이윤식 이인혜 이일호 이장근 이장호 이재원 이정선 이종수 이주영 이지영
이창우 이창일 이하송 이현욱 이현정 임상현 임성훈 임승락 임영애 임재희 임정식 임정재 장도희 장문성 장민경 장우규
장원석 장재희 장태식 전미희 전용식 전정표 정경주 정균철 정기호 정보민 정봉기 정봉식 정석자 정성재 정성훈 정수진
정영미 정영수 정원재 정은미 정익환 정재학 정태봉 정현경 정호도 정호섭 정희대 제찬열 조미옥 조성욱 조영숙 조의현
조항준 조혜지 조희진 주광국 진경구 진상화 차경원 차숙자 차순덕 차화준 천기욱 천인숙 천철호 최남오 최명희 최미혜
최병근 최보규 최순영 최승열 최영선 최옥림 최재근 최재열 최재혁 최정자 최종호 최주연 최지연 최차희 최창호 최춘원
최칠단 추교익 추승우 하민수 하성숙 하형주 한덕봉 한상갑 한영균 한준호 한철민 한희수 허기녕 허남혁 허영길 홍대권
홍승철 홍예선 홍춘기 황명화 **11,938** 황지옥 **15,000** 김영화 김혜영 전규진 조숙영

20,000원 강삼남 강윤근 견미령 광인화 구철홍 권유미 김도경 김문희 김미경 김미자 김범석 김선화 김재돈 김정영 김정희 김형진
도종복 박동호 박종훈 박창욱 박철암 변수강 서오용 세사미 손지식 송미숙 이경우 이경자 이매점 이복권 이석중 이순섭
이연자 이영주 이윤희 이원락 이장환 이정두 이정옥 이지아 이태호 이팔중자 이혜원 임진섭 임채봉 정명순 정옥자 정임주
정주경 정지영 정진주 정철호 정태화 조분이 조시영 조영숙 차정영 천승용 최두영 최명호 최원대 하광주 하승준 하종문
허성룡 홍운선 황수원 **25,000** 이현상 **29,466** 박문욱

30,000원 광학숙 김성진 김은실 김철호 김호순 남동성 도화진 류순찬 박재구 변상석 서정여 엄희정 오란숙 오충한 이상무 이석주
이성규 이완선 이유경 이점희 정동화 정영배 최임선 추영옥 허택 **40,000** 주영현

50,000원 강준순 구소연 김구한 김상관 김준형 서정범 송용주 여문경 이만식 이상윤 이하림 정희대 홍은기 **55,000** 손영호

100,000원 고재혁 김 인 김안나 김태일 배태균 장선헌 한창윤 **150,000** 문혁주

500,000원 현지호(후원회장)

기업/단체후원금 (주)나비드홀딩스 3,000,000원 / 광신석유(주) 2,000,000원 / (주)드림코리아 1,000,000원 / (주)화영 1,000,000원 /
한국검사엔지니어링(주) 605,000원 / (주)정산인테리어 500,000원 / (주)은성도금 300,000원 / (주)엠엘씨 200,000원 /
(주)제영 200,000원 / 이준희 이비인후과 200,000원 / (주)비즈웍스 100,000원 / 53사단총렬교회 100,000원 / 부산커피협동조합 100,000원 /
서부산산업엔지니어링(주) 100,000원 / 세원레이저 100,000원 / 태원정공 100,000원 / 항도공업(주) 100,000원 / (주)민성 50,000원 /
명보폴리머 50,000원 / 합천일류돼지국밥(배동식) 50,000원 / 문정빈그릇 30,000원 / 한림원예(김용기) 30,000원

모금함 ARS 7,236원

현열증 동부경찰서 방법순찰대 282매 / 부산지방공판스포원 16매

※치료비 치료보조비 지원현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